만약 보르네오섬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낭만적인 19세기의 어떤 작가가 만들었을 것이다. 알려지지 않은 종의 식물과 동물이 많이 려살고 있는 다우림으로 덮힌 광활한 섬. 해적과 야만인, 무슬림의 군주와 영국의 귀족, 중국의 금광 채굴자와 취관을 가지고 다니는 유목민족 모두가 그들의 일에만 여념이 없는 섬이다.